



스페인, 구제금융 우려 확산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은행권 부실로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,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됨.
 - 5월 30일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5bp 상승한 6.67%를 기록함.
 - 이는 연중 최고치일 뿐 아니라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며 기록했던 최고금리(6.7%) 수준에 근접하였음.
 - 전문가들은 국채 금리가 연 7%를 넘어서면, 차환(revolving)이 불가능하게 되어 아일랜드, 그리스처럼 구제금융을 받을 확률이 커진다고 분석함.

- 스페인 은행권 부실화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부실채권 급증 때문임.
 - 소시에테 제네럴은행은 스페인의 주택가격이 2007년 최고점에 비해 이미 25% 폭락했지만, 2013년 까지 15%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.
 -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경우 스페인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 - 2011년 6월 말 현재 스페인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은 3,230억 유로(약 482조 원)에 달하는데, 스페인 정부는 이 중 절반이 넘는 1,750억 유로를 이미 부실자산으로 계상함.

- 스페인 정부는 뱅크런 우려가 확산되자 자산규모 3위인 방키아 은행에 190억 유로(약 30조 원)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.
 -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은행권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언급함.
 - 190억 유로의 공적자금 규모는 시장에서 전망한 100억 유로의 두 배에 달하며, 2011년 투입된 자금 45억 유로를 더하면 방키아에 투입된 총 자금은 235억 유로(약 35조 원)에 이를 것으로 보임.

- 그러나 스페인의 공적자금 확보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.
 - 유럽구제금융자금(ESM) 사용에 대한 요청이 거절되었고, ECB가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의 공적자금 지원도 거부됨.
 - 다만, EU 집행위는 부실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은행구제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.

■ 그러나 스페인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음.

- Wall Street Journal은 막대한 부동산 부실에 노출된 방코 포폴라르 또한 방키아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노무라증권은 스페인 은행권 구제를 위해 총 500억~6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.
 - 일각에서는 카탈루냐 까익사와 방코 데 발렌시아 등에만 추가로 300억~350억 유로가 투입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됨.
- 스페인 총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임.
 - 방키아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한 은행들이 워낙 많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스페인 정부가 이를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근거임.

(Financial Times 등, 5/30)